지구촌비전

Vol. 217
5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특집 효(孝)

사역자메시지
행복한 사람

명의열전
생명 탄생의 신비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작은 친절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포토에세이

날마다 보아 익숙한 줄 알았다
걷고.
뛰고.
뒹굴고.
웃고. 소리치고. 환호 하였다.

온종일 바람불고
밤새 비 내리더니
파랗게 파랗게 개었다.
남색의 하늘아래
낯 설은 녹청의 세계가 떠 있다

산은 예산이로되 물은…
산천은 그 곳에 있지만
풍경은 거울 속의 얼굴처럼 낯 설다.
그들이 떠나 갈 때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차례가 되었다.

어제까지 화사하던 벚나무 생기 넘친다
파랗게 파릇하게
멀리서 씩씩하게 다가오는 녀석들
저들이 이제 주인이다.

바람이 감돌고 간 플라타너스 아래
마지막 남은 갈색 낙엽 떨어져 구른다.
비에 젖어 썩어져 갈 것이다.
새 잎들이 눈을 뜨고 있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있다.

두둥실 떠있는 흰구름이 오늘따라 익숙하다.

지구촌

사진 · 글 | 김산

contents

표2	포토에세이	
2	사역자 메시지	행복한 사람
10	OPEN 목장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
14	명의열전	생명 탄생의 신비
19	사회복지부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
24	연재소설	은하꽃다발을 너에게 선물할게 -4화-
30	미취학지구	가정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가정 세우기
32	대학지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5월의 블레싱 <프렌즈>
34	영어예배부	Faithful to the end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38	OPEN 교우문단	벽
39	OPEN 교우문단	그리움
40	특집	**효(孝)**
4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효의 의미와 실천
46		사랑, 효도의 또 다른 이름
48		그늘이 깊을수록 은혜 더욱 푸르른
51		내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52		효도 하고 계신가요?
54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56	지구촌 리뷰	2018 Next Gen 목자 아카데미
58	OPEN 그림묵상	그루터기
60	OPEN 지구촌평생교육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플루트동아리 "아도르"
62	글로벌홈스쿨링	아버지상을 세워가는 시간
64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작은 친절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66	지구촌 TOPIC	백혈구는 침입자경보를 위한 DNA '망(web)'을 론칭시킨다
72	Tea & Dessert	목장모임을 풍성하게 해 줄 Tea & Dessert
75	지구촌뉴스	교회 내·외부 소식 및 행사
76	설교말씀퍼즐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
79	유아기도	헌아식

OPEN 표시는 "열린 지면"으로서 지구촌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면입니다.
마지막페이지 '원고접수 및 안내'를 참고하세요.

2018
5

지구촌비전 통권 217호
2018년 5월 6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진재혁
편집인 김영기
디자인 이기쁨
발행처 지구촌교회 역사자료문서선교팀
전화 031-710-9300
www.jiguchon.or.kr

생명과 사랑의
최소의 공동체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는
푸르고 활기찬
감사의 5월!
효도의 5월!
이기를 기도합니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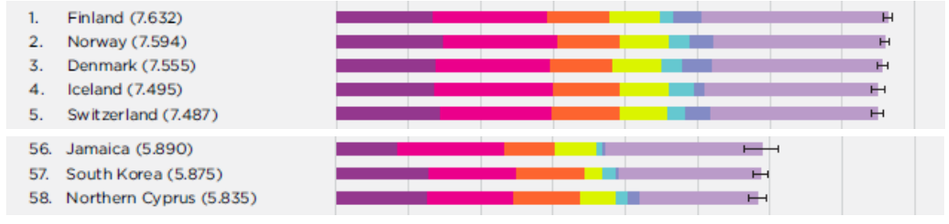
행복한 사람



유의동 목사
분당10지구

[26]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26~29)

최근 유엔 자문기구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18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8)」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였고 이어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7위였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조사의 58위보다는 한 계단 상승했지만 그 전 2013년의 41위보다는 16계단이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행복도를 잘 보여주는 조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사람들의 삶, 북유럽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면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북유럽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OECD국가 평균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9]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며, 앞으로의 삶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33:26~29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죽음을 맞이했고, 그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경험을 했다 해도

미성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의 경험이 그들 삶의 전부였고,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26]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이름 대신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따로 부르는 애칭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항상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이 들어가려다 실패했던 땅, 그 결과 부모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며 동시에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그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또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편 124:8)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지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 없을지라도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보장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때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보장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과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길이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 거인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도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수기 13:33)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부모세대들의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문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나안 땅에는 여전이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팔 중 한 팔이 우리 아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팔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8년 전쯤 추석 때 제 첫째가 산에서 작은 벌통을 건드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은 겨우 걷기 시작했을 때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한 팔로는 제 아들을 안고 다른 한 팔로는 벌들이 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흔들면서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몇 군데 벌에 물려 바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아들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도 그들을 뒤쫓으며 위협했던 애굽 사람들을 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14:13)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도, 결혼도, 꿈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사조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분명한 잘못을 죄라 말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고, 보이스 피싱과, 음란물 유포 등 신종범죄들은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녀도 죄의 유혹 앞에서 자유하다고 당당하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약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공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 다음 주어지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먹고 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이 경험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살았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농사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애굽에서의 농사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른 땅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단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비를 주신다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1:10~12 말씀을 보면 비를 주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농사를 지었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씨를 뿌리고 물이 없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넉넉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지을 물을 끌어 올 수 없는 환경

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신명기 11:14~15)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가축들이 먹을 풀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빛과 비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애굽 땅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느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족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갈급함을 내가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정서적 필요, 우리가 느끼는 관계의 필요,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필요까지도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바라고 그 채우심 안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Vanity Fair)'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천성을 향해가는 두 순례자가 광야를 빠져나오면

I'm happy because I got God in my life

그들 앞에 허영의 시장이 나타나서 순례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천성을 향해가는 순례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 도시의 주인은 바알세불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소유와 쾌락, 명예를 얻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집, 땅, 무역, 직위, 배우자, 자녀들부터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도박, 마술, 사기, 오락, 어리석음, 그리고 불법적이고 죄악 된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의 상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은 순례자들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유혹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하는 참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짜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고,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내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구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



김영훈 목자
수지9지구 광교1마을 호크마목장

작년 연말 저희 목장의 목자님이 다음 해 마을장 사역을 맡게 되시면서 저희 목장은 목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 목장원은 가끔 출석하던 자매님 한 분과 저, 이렇게 두 사람이었기에 저는 우리 목장이 다른 목장으로 편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목사님과 마을장님께서 목장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며 저에게 목자 제의를 해 주셨고 고민 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8년 1학기부터 목자로 섬기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원이 한 명뿐이라 약간의 염려도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개강 전까지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식하게 된 마을장님께서 저희 목장에 목장원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셔서 겨울방학 전 감사하게도 두 번째 목장원이 생겼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는 세 번째 목장원도 생겼습니다. 우리 목장에 몇 달 출석했다가 여러 상황 때문에 목장을 쉬고 있던 자매님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매님께서 본인의 신장을 큰아이에게 공여하여 신장이식수술을 잘 마쳤고, 목장에 다시 나오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목장원이 된 것입니다. 목장 개강 2주 전에는 네 번째 목장원도 생겼습니다. 같은 지구 마을장님의 VIP로 블레싱에 한 번 오셨던 분을 저희 목장에 배정해 주셨는데 직접 뵙진 못하고 전화통화로 처음 만남을 가졌지만 흔쾌히 목장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눌 기도제목을 미리 준비해 오게 하여 저희 집에서 첫 목장 모임을 드리게 되었는데 각 목장원이 서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주의 만찬 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소개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제목을 세세하게 나누며 깊은 교제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목장모임 후에도 다음 주 목장모임 전까지 자연스레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안부와 찬양을 나누며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은 큰 아이가 신장이식수술을 했던 자매님 댁에서 이루어졌는데, 자매님의 큰아이가 신장거부반응이 나타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매님이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전날 밤부터 자매님 대신 둘째 아이가 큰아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장 모임 전에 몇 번 전화를 드려 저희 집으로 장소를 바꾸자고 말씀드려도 본인 집을 모임 장소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자매님 댁에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매님이 큰아이 때문에 혜화역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고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해서 혜화역이 정이 안 가고, 싫다고 말씀해 주실 때 목장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며 자매님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또한 그 자매님 가정과 큰아이를 위해 깊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자매님의 큰 아이가 퇴원했으며, 일상의 평범한 저녁으로 돌아왔다는,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고, 모든 목장원들이 하나 되어 축하와 기쁨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목장 모임 때는 목장 내 부장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목장원이 되신, 기독교 신앙생활 경험이 전혀 없으신 자매님께서도 흔쾌히 친교부장을 맡아주셔서 모든 목장원들이 부장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 후부터 다음 목장 모임까지는 중보기도부장님

께서 매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 주시고, 매일 목장원 한 사람씩의 기도제목을 올려주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장거부반응으로 기도했던 자매님의 큰 아이는 다행히 이식한 신장에 대한 거부반응이 아니라 약 독성으로 인해 약이 잘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고, 집과 가까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장 모임은 목장에 가끔 출석하던, 최초 한 명의 목장원이었던 자매님 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빠짐없이 목장 모임에 출석하시고, 목장모임에서 다른 목장원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변화를 보여 주시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자매님 댁에선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목장모임 10분 전에 도착해서 자매님 댁 벨을 누르는데 아무 기척이 없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장원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벨을 누르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그 자매님으로부터 "혹시 도착하셨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명(耳鳴)이 있어 현관 벨소리와 전화벨소리를 듣지 못한 채 열심히 목장모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목장모임 중보기도 시간에 모든 목장원들이 그 자매님께 터치기도를 강하게 하며 이명이 낫기를 눈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큰아이가 신장이식수술을 한 자매님께서는 약간 늦게 목장모임에 도착을 하였는데 분당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큰아이만 병원에 놔둔 채, 오후에 아이 퇴원시키려면 차가 필요하니 집에 차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잠깐 목장모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목장모임이 너무 사모되어 이렇게라도 들르고 싶었다는 말에 듣는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목장모임은 교회에서 성금요일만찬으로, 다섯 번째 목장모임은 목사님의 목장탐방으로 중보기도부장님 댁에 모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목장 점검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니 목장에 큰 힘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부장님은 제일 많은 연세에도 가장 먼저 섬겨 주시고, 나눔 시간에도 먼저 자신을 오픈해 주시니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더 깊이 나눔을 할 수 있어 목장에 빠져서는 안 되는 맏언니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목장원이 되신 자매님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처음이지만 목장모임을 사모하며 열심히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나누니 신앙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목장의 막내, 마스코트이십니다. 이번 주 여섯 번째 목장모임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장의 카톡방은 오늘도 바쁩니다. 중보기도부장님이 올려주시는 목장원 중보기도제목이 올라오고, 서로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기독교 영화를 소개하는 목장원의 글이 올라오고, 다음에 목장에서 함께 보러가자고 답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고, 목장원 모두가 자기 일처럼 답해 주고 기도합니다. 저희 목장은 목장원들끼리 만난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장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목장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제목을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위로와 삶의 진정한 나눔을 원하신다면, 목장교회로 오세요.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자매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지구촌

우리 목장의 카톡방은
오늘도 바쁩니다.
중보기도부장님이
올려주시는
목장원 중보기도제목이
올라오고,
서로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생명 탄생의 신비



김연선
분당여성산부인과(031-701-0462) 원장

여성이 나이가 들면 매월 생리를 시작하고 소위 가임기에 접어들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성은 새 생명에 대한 흥분 섞인 기쁨과 동시에 그 생명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10개월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얼핏 보기에 인간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적이고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다 보면 매우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래서 차라리 기적이라고 불리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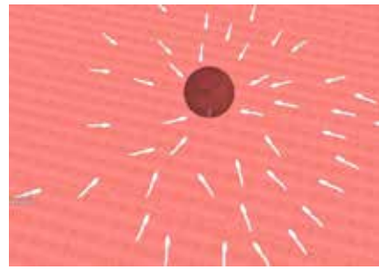
임신의 첫 단계로 먼저 정자와 난자의 생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자와 난자는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할까요? 정자와 난자의 생성을 보통 사춘기에 접어드는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사춘기에 이르러 난자와 정자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자는 사춘기 때 생식세포분열을 처음 시작하여 만드는 데 비해 난자는 엄마 배 속 태아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 생식세포분열을 시작한 후 잠시 멈춘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임신 16~20주 태아는 6~7백만 개의 난조세포(oogonia)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시 1~2백만 개로 감소하며 사춘기에 다시 분열을 시작할 무렵 3~5십만 개로 감소하며, 실제 가임기 동안에 배란되는 난자는 400~500개입니다. 태아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난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자는 노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원리로 개인의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을 면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임신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연유로 남자의 정자는 사춘기에 이르러 새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보다 가임시기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이에 대해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여성의 가임기가 남성만큼 늘어난다면 임신이 여성의 몸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여성의 수명은 그만큼 단축될 것이며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남녀 비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심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우선, 난자는 매달 한 번, 보통 하나씩 배란됩니다. 결혼 이후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 중인 여성 중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배란의 규칙성입니다. 정상 생리 주기는 24일에서 35일 사이로 이러한 규칙성은 말 그대로 매우 규칙적이어서 삼사 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월경주기를 가졌다면 먼저 배란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배란이 규칙적인 경우 그 규칙성에 따라 가임시기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최대 7일까지 생존이 가능하지만 난자의 수명은 고작 하루 정도인 까닭에 배란기 전후로 때를 맞춰 부부 관계를 해야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배란기에 맞춰 사정된 남자의 정자는 여성의 질과 자궁을 통과하여 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의 사정으로 사출되는 정자는 수천만에서 1~2억 마리이지만 난관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며, 그 중에서 가장 운 좋은 정자 하나만 난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억만 분의 일의 행운을 거머쥘 정도의 건강하고 운동성이 뛰어난 많은 수의 정자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힘겹게 결합된 수정란은 3~4일 후에는 자궁 속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수정 후 5~7일째 자궁내막에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과정을 '착상'이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착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정이 되었어도 아기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만으로 임신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착상 되어지는 과정 또한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인체의 항상성은 자가 면역 시스템에 의해 감시되고 보호되며 이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 면역거부(immune rejection)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인체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면역 기전입니다. 그런데 착상이라는 것은 배아, 즉 부성의 주조직적합성복합체 (MHC)를 가진, 모체의 입장에서 반동종이식(半同種移植, Semi-allograft)인 외부물질을 면역계가 받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외부 물질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유전자적 입장에서 보면 배아는 내 것의 반만 닮은, 모체의 면역기전에 의해 거부되어야 하는 외부 물질일 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임신 중 모체에서 일어나는 면역현상은 일반 면역계의 기능인 면역 거부(immune rejection) 와는 상반되는 면역관용(immune toleranc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 착상부터 임신 후반기까지 영장류의 생식활동은 모체와 태아간 면역계의 관용과 거부의 균형에 의존하게 됩니다. 활성화된 포배와 수용적인 자궁(receptive uterus)과의 상호작용은 착상과 초기 단계의 태반 발달을 이끄는 복작한 과정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과정과 연관된 수많은 조절 기전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단일 과정으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즉 태아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호르몬이나 동일한 세포가 반대로 면역거부 기전으로 작용하게 되면 착상거부, 즉 유산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탈락막 또는 자궁내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는 극소수의 백혈구만 존재하며 주로 세가지 아형의 면역세포 즉, T림프구, 대식세포(macrophage), 자궁내 자연 살해 세포(NK T cell) 등이 주를 이루고 B림프구가 거의 없는 점 등에서 말초혈액의 면역세포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체 면역세포들은 자궁내의 태아와 모체가 접촉하는 “태아~모체 접촉면” 탈락막관련림프조직(decidual associated lymphoid tissue, DALT)이라는 임신 고유의 조직학적 구조물 내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에 수반되는 혈관 생성 및 영양막의 발달에 필수적인 무균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태아에 대한 모체의 면역관용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체의 면역세포들과 여러 전달물질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연결망의 형성에 의해 형성된 적절한 염증반응은 오히려 아기가 자궁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자궁벽을 두껍게 유지하는 등의 여러 기능을 하게 되며 배아의 착상 및 임신의 유지에 필수적인



혈관생성 및 영양막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역기전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 급성 혹은 만성 이식거부 반응과 유사한 작용을 일으켜 태반의 성장, 태아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착상실패, 습관성 유산, 전자간증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임신 기간은 280일인데, 4주 28일을 한 달로 계산하여 보통 10달이라 정의하며 이 열 달 동안 태아는 엄마에게서 본격적으로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무럭무럭 자라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열 달 후 다시 한번 동일한 면역체계가 이전과 모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을 시작하여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진 내 몸의 일부를 바깥으로 내 보내는 이른바 분만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과정, 즉 최초의 정자와 난소의 형성에서 시작하여 분만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섬세하고 오묘하여서 결국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The Selfish Gene)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인류는, 아니 육체라는 것은 결국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 DNA란 복제자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각각 생물의 다양한 성질은 그 성질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생존이나 증식에 유리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설을 주장한 책입니다. DNA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복제 성공도가 최대화되도록 하는 일이며 이후 삶의 과정들이 그러한 이기적인 의도 하에서 진행하기에 “이기적인 유전자”라 일컬을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통해 자식을 낳을 경우 이러한 내 자식은 나를 구성했던 유전자의 절반만을 가지고 있게 되고 내 유전자의 절반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원래의 독특한 조합은 사라지게 되며 불멸의 존재로서 유전자의 보존은 결국 집단의 보존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류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동안 임신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남성과 청소년에게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 있습니다.

아기 몸무게에 해당하는 복대를 둘러매고 일정시간 동안 생활하게 하는 체험이었는데 다들 배에 얻은 태아의 무게만으로도 요통과 배뇨통 호흡곤란, 걷는 것은 커녕 똑바로 누울 수도 없는 고통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을 TV 등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임신이 모체에 미치는 여러 내과적인 문제를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그 체험만으로도 모체에 임신이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체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듭할수록 유전자의 절반이 없어지면서 때때로 그 생존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허락하는, 비생산적이지만,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이기적인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허락할리는 만무하기에 역시나 이렇게 생명이란 것을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신비"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신이 어디 있냐고 증명해 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우리가 자연적인, 혹은 자연의 섭리라는 말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들의 내면을, 아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 치밀함과 섬세함에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가능한 건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숨부터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



유명운 목사
사회복지부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결정과 만남을 통해 행복한 삶이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결정은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죽음뒤의 삶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결정과 만남 중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은 오직 배우자와의 만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속담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로 떠날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작가인 입센(Ibsen)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비바람과 파도가 심한 인생의 거친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부부가 **"이 거친 바다를 헤쳐 갈 나침반을 아직 준비하지지 않은 가운데 그 바다로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메디언 박명수는 우스갯소리처럼 **'결혼과 죽음은 늦출수록 좋다'**라는 명언을 남겼고, 우찌무라 간조는 **"가정은 대다수에게 행복한 장소가 아닌, 인내의 장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를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힘들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않되는게 결혼입니다. 특히 결혼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드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제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소개함으로 그 어려운 결혼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나의 선택 정도로만 인식하며 비혼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추이를 보더라도 매년 결혼율과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만 가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결혼 사역과 가정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연합하게 하심으로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10가지의 성경적 결혼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 원리들은 이렇습니다.

1원리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이고, 2원리는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영역에 속한 것이며(18절), 3원리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며(22절), 4원리는 각자에게 돕는 배필로써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18, 20절)

5원리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원리이며(22-23절), 6원리는 남녀동등(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며(22절), 7원리는 부모로부터 떠남과 독립의 결혼원리입니다(24절).

그리고 8원리는 부부가 서로 연합한다(24절)는 것이고, 9원리는 둘이 합해 한 몸을 이룬다는 결혼원리입니다(24절). 마지막으로

10원리는 부부간에는 서로 감추는 것이나 수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결혼의 원리(25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 19장 4~6절의 말씀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 쌍이 결혼을 하면 1년이 안되서 1쌍이 이혼을 하고 온갖 매스컴과 영화에서는 이혼을 미화하며 이혼을 약속에 대한 파기가 아닌 행복을 위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고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풍토가 만연한 것이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속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결혼관과 가정관일 것입니다.

하나님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안겨 줍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간에 풍성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 돕는 동역자를 얻을 수 있으며 네 째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동역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함께 함으로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신랑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이 주는 단점보다 축복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축복이 아닌 구속이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치중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보다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강한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안에서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자가 점점 늘어나며 싱글가정들이 사회와 교회의 문제가 된 지 오래이고 그러다보니 점점 다음세대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현상으로 하나님은 신성한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창조사역과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와 축복들을 미리 알리고



미리미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미리 살피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안에서 남편으로써 아내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안에서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결혼예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예비학교는 가정사역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토요일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1, 5, 7, 9월) 결혼예비학교에서는 미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생각하고 결혼 언약의 중요성과 신혼부부의 재정관리, 성경적인 성 이해, 커플관계분석검사를 통한 갈등해결기술과 창조적 대화법에 대한 실제적인 결혼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생활 성경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결혼예비학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사역팀에서는 부부사랑학교와 사랑의 순례, 참된 아버지됨을 생각하고 배우는 파더후드, 창조적인 대화교실과 부부행복 플러스, 신혼부부 소그룹 워크숍등 신혼부부 및 결혼하는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데 이미 그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미리미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미리 살피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안에서 정말 남편으로써 아내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독특하게 결혼 전 사전 리허설을 통해 결혼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을 위한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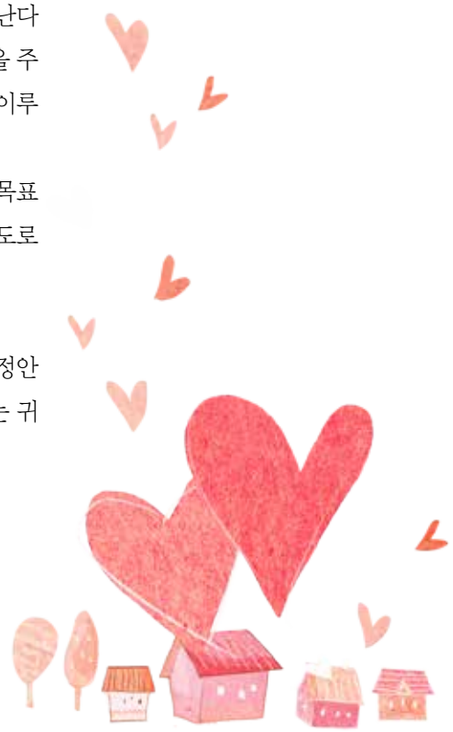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심적인 결혼준비인데 남편으로써, 아내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1년 여 동안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안내 봉사팀에서는 1주년이 되기까지 2~3차례에 걸친 전화 심방과 만남을 가지며 신혼부부 가정이 교회안에 잘 정착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면 담임목사님 저서와 함께 향초를 선물하며 신혼부부 목장으로의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센터에서는 신혼부부 목장 및 마을을 지정하고 신혼부부들이 목장교회에 잘 적응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역들을 펼치는 주된 이유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룰 때 경험해야 하는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지역사회안에서 크리스챤 가정으로써 롤 모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안에서의 가정교회로써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히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지역사회가 살아난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아닌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 가정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하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은하꽃다발을 너에게 선물할게

-4회-

김은규 집사(분당11지구)

희아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씨익 웃었다.

"너만 믿어!"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난간에 걸치더니 바깥쪽으로 넘어갔다. 그대로 뛰어내렸다. 말릴 새도 없이,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아, 뭐야!"

나는 손에 든 책을 내던지고 허둥지둥 뒷베란다로 뛰어갔다. 희아가 열어놓은 방충망 밖으로 몸을 내밀고 숨죽여 외쳤다.

"아무리 이층이래도 그렇지, 무슨 애가 겁이 없어! 그리고, 니네 엄마가 밑에서 기다리신다며!"

"너만 믿는다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옷을 털며 희아가 깔깔거렸다.

"늦었어. 오빠 가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다 얘기해줄께!"

희아가 절뚝거리며 나무울타리로 달려가 개구멍을 파고들었다. 나는 바보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얼마동안 서 있었다.

"니네 집에 놀러오라고 전화해줘. 캔오빠랑 약속이 세 시니까 그 전에 해야 돼. 잊으면 안돼."

어젯밤 옥상에서 희아가 상경이 모르게 다시 다짐 둔 것을 까먹고 있었다.

주방 한가운데 웅크린 반찬가방을 돌아봤다. 조금 전에 저 보따리를 들고 쳐들어와

나를 노려볼 때 비로소 아차, 했지만 이런 꿍꿍이가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 철딱서니에 떼쟁이공주님으로만 알았다가 제대로 한 방 먹었다. 일층 현관 앞에 서 있는, 희아엄마만큼이나 하얗고 반짝거리는 차를 보자 가슴까지 뜨끔하다. 언제까지 징징거릴래, 책에서 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나 같으면 차라리 가출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희아를 잔뜩 약올린 참이었다.

딩동!

벨이 울렸다. 마침내.

현관문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약속을 어긴 대가 치고는 너무하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악역을 맡아야 해?

딩동, 벨이 다시 울리고 얘들아,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가, 의자에 걸쳐둔 파카를 벗겨 들고 신발을 챙긴 뒤 다시 뒷베란다로 갔다. 희아가 했던 것처럼 난간을 타 넘어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생각보다 더 무서웠다.

아우……그 사이에 희아엄마 전화가 세 통이나 왔다. 희아 번호를 눌렀더니 꺼져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나도 전원을 꺼버렸다.

"수나로구나. 상경이한테 가니?"

뒤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상경이엄마다. 오징어버터구이 수레가 무거운지 허리를 잔뜩 구부리셨다.

"……네."

원래는 공원으로 가 희아를 찾아보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수레 뒤를 힘 주어 밀자 상경이엄마가 덧니를 보이며 돌아다봤다.

"사장님이 독감 걸렸다면서?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더라. 일 시작하자마자 웬 일이래."

"상경이 휴대폰 없으니까 답답해요. 하나 사주세요."

"어머, 얘좀 봐? 싫다는 애한테 뭐하러 사주니?"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연락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천국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란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지."

"아멘."



"호호. 너도 크리스찬 다 됐구나. 잘 됐다.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같이 가자. 상경이도 데리고. 니가 간다면 분명 따라갈 거야."

"내일 바쁜데요."

"졸업도 했는데 뭐가 그리 바쁠까? 하긴, 하루종일 노는 것도 일은 일이지. 아빠도 다시 다니기로 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괜히 시작했다는 뜻에서, 또 그만하겠다는 뜻에서 아멘 했는데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갔다.

시장을 돌아나와 오토바이점으로 갔다. 상경이는 없고 심하게 아프다는 사장님 혼자 바둑을 두고 있다.

"월요일부터 나오기로 했다. 무슨 여친이 그것도 몰라."

상경이를 찾자 사장님이 빙글거렸다.

"여친 아닌데요."

"그럼 왜 찾아다녀? 여친이니까 그러는 거 아냐?"

"여친 아니라니까요!"

"얼굴에 다 써 있구먼 뭘. 아저씨가 딸 둘을 키워봐서 잘 아는데……"

"아, 진짜!"

문을 벌컥 닫고 돌아서는 순간, 오토바이 거울에 반사된 햇빛이 대뜸 눈속으로 파고들었다.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토요일이라 그런가 공원은 축제라도 벌어진 것 같다. 개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풍선들이 떠다니고 경쾌한 음악소리도 들려왔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 하나 없다니, 내가 마치 태양계를 떠나 낯선 별무리 속을 홀로 여행하는 보이저1호 같다. 고독하다는 뜻이다. 내 벤치마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오늘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젠장!

음악소리를 따라 잔디마당으로 갔다. 작은 원형무대에서 밴드와 중창단의 공연이 한창이다. 어깨에 띠를 두른 언니오빠들이 전단지와 함께 뜨거운 차를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 현수막을 보니 상경이엄마 교회의 대학부 행사다. 그리고,

"멋있다!"

밴드 코앞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애가 있다. 희아다.

혼자는 아니고 꽁지머리 남자와 함께 있다. 보나마나 희아 어릴 때 영어를 가르쳤다는 캔오빠일 거고, 평생 눈치볼 일 없이 살아온 애가 있다면 당연히 희아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빠도 아닌 어른남자와 팔짱을 끼고 저렇게 바싹 붙어 있어도 되나? 닭살 커플이 따로 없다. 왠지 오금이 저리다.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기침이 하고 싶어진다.

무대에서 좀 떨어진 벤치에 앉았다.

상경이는 도대체 어찌 된 건지……

눈앞에 아른거린다. 수타면발처럼 점점 길어지고 점점 가늘어지는 중인 그애의 뒷모습이……

어릴 적부터 소꿉놀이, 병원놀이, 시체놀이를 함께 했고 지금까지 같은 반을 여섯 번, 키가 비슷하게 자란 고로 짝꿍을 네 번 했던 상경이, 학원을 빼먹고 나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상경이, 내 꼬드김에 넘어가 빌려온 만화책을 세 번씩, 처음엔 그림만 보고, 두 번째는 줄거리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꼼꼼이 분석해가며 읽던 상경이……

솔직히 뽀뽀도 해봤다. 딱 한 번. 우리집에서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걔가 영화 속의 키스신에 하도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귀를 잡아당겨 내 눈을 보게 한 다음 재빨리 입을 맞췄다. 그러자 분위기 없는 애가 눈을 깜빡이며 제 입술을 빨고는 이렇게 말했다. "니 침에서 과자 맛 난다."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증거다. 책 속의 사랑 얘기를 읽어보면, 만남은 그렇고 그랬음에도 운명임을 단번에 알아차리던데, 눈 온 뒤처럼 세상이 환해지고 포근포근해지고, 차들이 빵빵거리는 소리도 자신을 맞이하는 팡파르로 들린다던데, 우린 과자봉지 속에서 손가락이 백번 부딪쳐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오토바이가게 사장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여친이니 뭐니……

순수한 우정의 이름으로, 상경이에게 묻고 싶다.

"너 혼자 어딜 쏘다니니? 언제는 배낭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더니 마음이 변했니? 말만 하면 어디라도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있다. 머릿속이 시끄럽고 복잡한 거다. 점심때 학교 운동장처럼. 정리 안 된 옷장처럼. 잘못 건드리면 뒤죽박죽 집어넣은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나올까봐



문을, 아니 입을 꼭 다물게 되는 거다. 고독해지는 거다. 이럴 때 고독은 자리가 진짜 좁다. 자판기의 프림커피처럼 중독성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힘들다는 뜻이다. 상경이도 그래서 혼자 숨어버린 거다. 내가 겪어봐서, 지금 겪고 있어서 잘 안다.

아까부터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교회언니를 투명인간 취급한 것도 그래서다. 그 언니가 머뭇거리며 다가와 이런저런 말을 건넬 때 못들은 척한 것도, 자매님은 만일 오늘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꾸없이 째려본 것도 그래서다.

뒤늦게 후회스럽다. 아빠의 하나님, 상경이엄마의 하나님을 봐서라도 좀 성의있게 대답했어야 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믿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삐딱하고 말이 많은 애라고 하실 것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점수를 잃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잠시 눈 돌린 사이에 희아와 캔오빠가 사라지고 없다. 저만치 길에서 깔깔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따라갈까 하면서도 그냥 앉아 있다. 급한 볼 일이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걸음이 바쁘다. 나를 눈치 못 챘는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켠다는 걸 까먹은 휴대폰을 꺼냈다. 희아 폰은 여전히 꺼져 있고 부재중 전화 다섯 통의 발신자는 모두 희아엄마다!

해가 많이 기울어, 중창단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밴드가 마무리 곡을 소개했다. 어둡기 전에 나도 집에 가야겠다. 가서 책이나 실컷 읽어야지.

그런데 뜬금없게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나는 엉거주춤 선 채로 무대를 돌아봤다. 귀에 익은 이 멜로디, 아빠가 휘파람으로 자주 부르시던 바로 그 노래다!

아까 제목이 그리스도 뭐랬지? 마이크가 웅웅거려 잘 듣지 못했는데, 그동안 무심히 흘려 들었는데, 오늘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밴드의 라이브연주라 그런가 마음이 출렁거린다. 눈이 뜨거워지면서 있는지도 몰랐던 그리움이 함께 출렁거린다. 내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아빠에게서 문자가 날아온다.

—딸, 잘 있지? 아빠는 LA에서 산티아고행 기다리는 중. 내일 아침 도착해서 전화할게.

보고싶으니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나보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냐고,

휘파람 제목이 뭐냐고, 휘파람 말고 노래 제목이 뭐냐고, 썼다 지우고 썼다가 또 지웠다. 그 여자랑 도대체 어떤 사이냐고 썼다가, 내가 지금 뭐하자는 건가 그냥 잘 있다고 해두지 뭐, 그랬는데 실수로 보내기를 눌러버렸다.

보내고나니 궁금하다. 잘못 쓴, 아니 솔직하게 쓴 문자들이 빛의 속도로 태평양을 건너고, 눈이 휘둥그레진 아빠가 큼큼 헛기침을 하며 어디까지 털어놓을지를 고민하며 엄지로 눌러 썼을 답신이 태평양 이편으로 날아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아침이 지나 다시 밤이 되어도 아빠는 기척이 없다.

오늘따라 집안이 썰렁하다. 작은 아파트가 우주만큼 막막하다. 이런 기분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괴물나무의 꿈을 꿀 확률 200프로. 뭐, 밤새도록 책 읽으면 되지.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 같은 곳을 읽고 또 읽는다. 열두 번째 읽다가 뉴스를 검색한다. 이것도 열두 번째……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적어도 하늘에서는.

벌떡 일어나 소파 옆의 탁자를 들여다본다. 이 안에 할아버지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이…… 없다. 안방을 뒤지고 서재도 살펴보고 나온다. 어디에도 없다. 거실 유리창 속으로, 소파 귀퉁이에 웅크린 여자애, 그러니까 순아가 보인다. 유리창 저편의 순아가 유리창 이편의 나를 근심스럽게 바라본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는 듯이.

이런 상황이 바로 아빠가 말한 어둠일까? 그러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나 강수나, 그 정도로 얼굴이 두껍지는 않은데……

아빠가 영상통화를 요청한 건 바로 그때다.

늦은 밤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불쑥 나타나서는, 얼굴 좀 볼까 싶었다고, 별 일 없느냐고 하신다. 어째 좀 우물쭈물하시는 것 같다. 큼큼거리고, 주먹으로 눈을 문지르고, 코를 훌쩍이시다가 엇, 휴대폰까지 떨어뜨리셨다.

화면이 잠시 요동치면서, 언뜻언뜻 주위를 비추었다. 여자의 모습이 잠깐 담겼다가 사라졌다. 순간, 한눈에 알아봤다. 처음 봤던 때가 밤이었고 거리도 좀 있었지만, 본능이, 직감이 외쳤다.

기, 긴머리 여자가 저기는 왜! 지구촌



가정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가정 세우기



임준희 목자
수지영아촌

가정예배란 교회의 각 지체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에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보통 부모가 신앙 리더로서 예배를 이끌며, 교회의 공적인 예배 형식 중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예배와 삶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영적 제사장으로 새로워 지고 싶은 갈망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역할과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중심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영적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제사장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짊어지고 책임질 가정에서의 영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가정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남편 된 자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요구하시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가정에서도 목자의 삶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먹이는 아빠의 삶, 바쁜 일상 가운데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지 알고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인도의 시작은 아빠. 찬양은 다함께, 회개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온 식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은 엄마, 아빠, 자녀들이 동일한 본문의 큐티말씀 나눔으로 진행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가정예배 시간에, 마무리는 엄마가 기도해주는 온전한 가정예배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싶습니다.

찬양목자로 섬기는 제 사명 가운데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아들 세훈, 딸 하율, 아내 조경은 목자와 기쁨 가득 찬양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쁨 가득 온 맘 다해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앞에 나의 죄와 심지어 가족이 넘어지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구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5월의 블레싱 <프렌즈>



길진 목자
수지1캠퍼스 길과 진리 목장

5월에 진행되는 젊은이목장 전도축제 <프렌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VIP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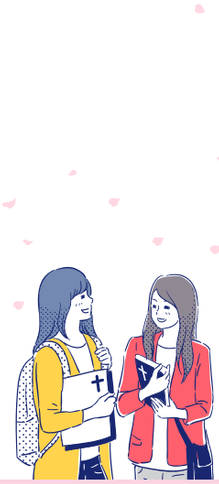
재작년 3월 젊은이목장 전도축제가 시작되는 시기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동기가 저에게 휴학 전과 휴학 후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교회에 호의적이었고 개방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최대한 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었고 목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목장 모임이 재미있겠다며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5월에 있을 젊은이목장 전도축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고, VIP는 교회에 와주었습니다. 친밀하고 활발한 저희 목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그 친구는 쉽게 목장 모임에 적응 했습니다. 버킷 리스트를 나누는 시간에 제 VIP 친구는 일본으로 여행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고, 저희 목장은 VIP 친구에게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준비하여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너무나 잘 정착해 나가고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 일정이 맞지 않아서 교회에 더 이상 못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포기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음 해인, 바로 작년 5월 젊은이목장 전도축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때도 저의 VIP 친구에게 교회에서 준 접촉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친구는 매번 챙겨줘서 고맙다며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찾은 그 친구는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또다시 중간고사,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과제가 많아서 나오기 어렵다며, 결국 다시 장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예배와 목장모임에 참석하고, 파워웬즈데이 예배도 참석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붙들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친구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5월의 블레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전 5월의 블레싱을 통하여 처음 교회에 나와 목장의 따뜻함을 경험했던 나의 친구. 1년 전 5월의 블레싱을 통하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Xee 복음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나의 친구. 과연 이번 5월의 전도축제 <프렌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지 저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제 친구를 목장을 통하여 교회를 경험하도록 인도해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5월의 블레싱. 이번 5월에 있을 전도축제 <프렌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제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함박웃음 지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Faithful to the end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Hollie

I came back to Korea to teach English in 2014 and it is interesting how I came to serve in GEM youth. According to my parents, my family attended Jiguchon back when it was in Jeongja area. Even though I have no specific memories, and all that I do remember is going to Burger King and having fries while waiting for my parents, since I was looking for a church to attend, I decided to give it a try. When I was skyping them, they also told me that they are currently partners with Global Missions Church in Bundang and that they send short term mission teams to Albania, where my parents work as missionaries.

저는 2014년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지구촌 영어예배 청소년부로 섬기게 하신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예전에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길, 지구촌교회가 정자동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지구촌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버거킹에서 엄마아빠를 기다리며 감자튀김을 먹었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다닐 교회를 찾고 있었기에 한번 나가보기로 했고, 나중에 부모님과 스카이프로 연락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현재 지구촌교회와 협력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며, 지구촌교회가 부모님이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나라인 알바니아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At first, I attended K side with my younger sister, but I thought it might be better for me to go to GEM 2pm adult service where I could meet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ho could better relate to an MK like me. After about 2 months of attending GEM 2pm service, I heard an announcement that they were looking for youth teachers. I wanted to serve God and the church, so I prayed about it, decided to become a TA and have been a youth teacher ever since. Little did I know that this decision would become one of the greatest blessings in my life. The teachers were incredibly faithful, serving with sincerity and dedication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in Christ. I have found a wonderful community where teachers pray for one another, encourage and challenge each other to be better servants and disciples of Jesus. God has also stretched me, disciplined me and allowed me to grow even though I didn't go into it thinking it would produce these results. I am so thankful for our youth pastor and the teachers who have been great examples of humble servants.

처음에는 동생과 함께 한국어 예배에 나가다가 선교사 자녀인 저랑 비슷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2시 영어 예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2달 정도 나가다가 청소년부를 섬길 교사를 찾는다는 광고를 듣고 기도 후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이 제 삶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신실하셨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에 온 맘과 열정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더욱 좋은 청지기와 제자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훌륭한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역시 부담을 주셨고 훈련시키셨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저는 겸손한 청지기로서의 훌륭한 본을 보여 주시는 유소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I thought everything was great and awesome for about a year serving as a youth teacher, but God started to work in my heart and began encouraging me to go back to GEM 2pm service. I had left GEM adults for a while and was attending a different church after youth service. Initially, I didn't think anything of it, but as time went on, I sensed that God wanted me to stay consistent

I have found a wonderful community where teachers pray for one another, encourage and challenge each other to be better servants and disciples of Jesus.

저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더욱 좋은 청지기와 제자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훌륭한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in serving in one church and being part of the same church.

청소년부 교사로서 섬기는 약 일 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맘속에 역사하셔서 GEM 2시예배로 복귀할 것을 격려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GEM 성인예배를 떠나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것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섬기고 동일한 교회의 지체로서 일관되게 머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Reluctantly, I went back to 2pm and the first sermon I heard from Pastor Mike was the need for cell groups and the importance of serving God in this area. He encouraged all of us to consider becoming a cell group leader, and I felt the Holy Spirit strongly urging me to create one. I had personally had a difficult time finding a group to belong to, given that I am not the most extroverted person. I made the decision to leave because at that time, I wasn't able to get plugged into a small group. However, now that God has made it clear that He wanted me to stay here and be part of this church, it became obvious that this was what God wanted me to do. I approached Pastor Mike after the service and told him that I was interested in starting a group. With the help of a co-leader, we launched a cell group and a few months later, God gave me the heart to also start another group specifically for the newcomers.

다시 2시 예배를 나갔고, 그때 Mike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과 왜 리더로서 섬김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모두 생각해 보라고 강하게 격려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별로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2시 성인 예배에서 제가 소속할 소그룹 공동체를 찾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소그룹모임의 일원이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2시 예배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섬기는 걸 원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기에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리더로 섬기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섬겨 줄 리더와 함께 소그룹을 만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난 뒤 새로운 신자들만을 위한 소그룹도 만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I never thought I could be a leader of a cell group because I lack in so many areas, but one thing I am learning through these experiences is that we serve not because we are perfect and meet all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but because God, in the midst of our weakness, commands and chooses us to serve His Kingdom and people for He is more than able to work through and in us to do His work that brings Him glory.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에 한 번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는 저희가 완벽하고 필요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저희의 약함 가운데서도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런 저희 안에서 일하시며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부분입니다.

I am so grateful that God has led me to GEM and GEM youth. I could not have done it without knowing and trusting that we serve God who is faithful to the end. I believe God is actively working in this community and will continue to do so, and I am so excited to see all the wonderful works that God will do in the coming years. ^^

저를 GEM과 GEM 청소년부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을 믿기에 이루어 나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구촌

Worship Guide

Ask any questions on
English Worship Service
to Global cell group center.
T 031-710-5924,
MD Plaza 8-805

예배안내

영어 예배부에 대한 문의는
글로벌목장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T. 031-710-5924
지구촌 선교센터(MD프라자)
8층 805호

벽



박수민 목자
시니어부

지친 몸으로 돌아올 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어이없는 실수로 괴로워 하면
말 없는 진심으로 격려를 했지
병마의 고통에 시달릴 때도
가까이서 묵묵히 감싸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지켜 주었지
절박할 때 함께하는
표정없는, 말없는 고마운 친구야
너의 따뜻한 우정 잊을 수 없구나
나의 부끄러운 삶 탓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만 보는 너의 심성이
너무도 고맙구나
내가 세상 떠나는 자리에서도
포근히 전송해 줄 미더운 친구야
나는 너를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한다

지구촌

그리움



김영길 장로
시니어부

오월이 되면
그리움은 나뭇잎처럼 피어오르고

연두 빛 꿈들이
초록빛으로 짙어질 때

아련히 떠오르는 얼굴 하나
밀려드는 그리움에 마음이 아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소월의 노래에 나의 춤을 실어

헤아릴 수 없이 아쉬웠던
추억의 편린 속에

빠알간 색연필로 행복했다고
촉촉이 물기스민 눈길로 적어 놓는다.

지구촌

특집

효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3절)



孝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효의 의미와 실천

채정일 목사
분당1지구

"효"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유교적 관점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깊이가 없거나 심지어 소홀하다는 이미지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깊이적인 면에서 볼 때 기독교가 "효"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적 "효"의 개념이 확립된 것은 B. C. 500년경 공자에 의해서이지만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앞에 서게 된 것은 B. C. 1,500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십계명"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적인 면에서도 결코 약하다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확인해 보면 "효"에 대한 부분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제 5계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의 순위가 하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 계명부터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간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 중 가장 우선순위로 존재하는 것이 "효"에 대한 부분임이 분명히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뿐이지 부모를 향한 효에 대한 부분의 우선순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성경은 **"단 방향"**의 윤리만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유교적 윤리의 경우 아랫사람이 위를 섬기는 부분이 주로 강조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찌 어찌 하라는 부분은 쉽게 확인 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라는 내용은 그렇게 발달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쪽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에베소서 6장에 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1~3) 이 후에 바로 6:4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효"라는 것이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실질적이고 관계적인 윤리이며 계명임을 생각할 때 단방향 보다 양 방향을 나누는 것이 더 "실천적"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은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양 방향성 까지도 고려하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실질적인 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더욱 오래되고 깊이적인 면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으며 훨씬 실제적일 수 있는 기독교적 효의 관점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오해가 그 원인이 되어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오해들은 이렇습니다.

1. 성경은 "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앞서 기술한 대로 분명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관계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뒤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신앙임을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윤리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성경은 부모를 떠날 것만을 주로 강조한다.

- 여기에서 주로 인용되는 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과 막 10:29~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받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예수님의 마가복음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는 명령이 아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맞추고 희생하는 삶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위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 19:27) 사명 앞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이 바로 부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기독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인정치 않는다.

-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말하며 육신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유교와 달리 기독교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강력한 정신적 육신적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강력한 축복권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장자에 대한 강력한 축복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직접 허락하셨고 그 권위 또한 인정하셨음을 창세기 27장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에 와서 오히려 이 축복권은 성도들에게 상당부분 잊혀진 것이 되었으나 지금도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축복권은 분명하게 살아 있으며 그렇게 이어지는 축복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빛이 되고 있음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결국 "효"에 대한 기독교의 약화된 관점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을 깊이있게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영적인 공격이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복음전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가르쳐 왔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지는 상대적으로 덜 고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 신앙적 계명과 성경적 윤리관을 명확히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믿음이 그들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 부모의 영향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들은 신앙적인 "효"의 개념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예준"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시대, 이름은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신앙적 영향력이 위에서 아래로 은혜롭게 흘러내려가기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지켜 내려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적 "효"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며 이어갈 분명한 필요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 되며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하며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강한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가정의 달 5월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촌

사랑, 효도의 또 다른 이름

동석기 장로
시니어 A마을 갈렙 5목장

신혼 초, 직장에서 아내를 틈틈히 생각하고서도 집에 도착해서는 손을 덥석 잡으며 "종일 생각했노라"고 너스레를 떤 적이 많았다. 5월이 오고 거리에 어버이에게 선물할 크고 작은 카네이션 꽃바구니들이 보이게 되면, 내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불효와,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생각하게 된다.

효도는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있다. 유교적 관습에 익숙했던 아버지께서 어린 내게 살아계신 어버이에게 행할 바른 효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효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말을 했는데, 아들은 그래야 하는 이유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거에 거절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효자로 이름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 그 친구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에게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말하자 그는 두말 않고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 놓고 고삐를 잡고 소를 지붕에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아들은 그때에야 아버지가 바라는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또 돌아가신 어버이에게도 불효자가 되지 말라시며 "효도는 본래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 행할 일을 의미함에는 변함이 없으나 어버이의 사후에도 추석이나 한식에 선산에 가면 산소가 언제나 잘 관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효자라는 칭찬을 듣게 하고, 잡초로 덮여 있어 임자 없는 묘지 같아 불효한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다.

제사를 모실 때에도 혼이 현세에 제사를 받으러 온다고 생각해 오는 길에 걸림이 되지 않게 빨랫줄을 치우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효도를 하면 조상들이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면서도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친척들에게 불효자라는 말을 듣지 않게 정성을 다해 기독교식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유교적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경애함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전체가 효도이고 그렇게 하면 조상들에게서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내 나이 일흔 중반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 자리에 와 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유교적 관습에 익숙했던 아버지 세대의 효도와 내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독교적 효도관의 다른 점을 경험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공경이나 순종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엡 6:1)고 순종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딸들에게도 혹 부모의 잘못을 발견하면 노아의 아들, 함처럼 하지 말고 셈과 야벳 같이 기도로 허물을 덮어주고(창 9:20~23), 시댁에 대한 바른 태도와 신앙과 삶에 대한 조언도 먼저 옳고 그름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조언하는 것이 참된 어버이의 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사도 오랜 동안 추석에 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친척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힌 적도 있지만 추모예배가 돌아가신 어버이를 추억하고 따르려는 기독교식 제사 같은 것이라고 꾸준히 설득하며 정성을 다함으로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집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도 돌아가신 영혼을 위함이 아니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 전, 혹은 후에 식탁을 차릴 것인가를 놓고 여러 생각을 한 적도 있었으나 오해의 여지를 없이 하려고 예배 후에 식탁을 차리고 둘러 앉아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 자녀들에게 가계의 내력을 알리는 등 죽은 영혼을 위함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한다.

아주 드물게 기독교인 중에도 어버이들이 남길 유산을 마음에 두고 효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고 효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생존해 있는 어버이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3)라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효도, 많이 듣고 쓰는 말인데도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효도의 개념은 어쩐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지금의 세대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낯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바꿔 생각하고 싶다.

어버이날이 오면 카네이션을 들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며 품에 안길 것이다. 사랑은 효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지구촌

그늘이 깊을수록 은혜 더욱 푸르른

주나라 성도
분당9지구

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의 안락의자다. 당신께서 시시때때로 나와 앉아 집 안팎은 물론 담장을 끼고 저만치 큰길로 이어지는 골목까지 케루빔 같은 눈빛으로 감시하시던.

두툼한 팔걸이에 등받이가 높은 이 안락의자는 셋집을 전전하던 당시의 우리집 형편에는 가당치 않은 물건이었다. 다만 한 사람, 아버지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크고 높게 바라보았던 나는, 아버지가 잘 나가던 시절에 지은 죄가 있어 잠자리가 편치 못했던 어느 재산가의 아들이 들여놓고 간 박래품*이 아닐까, 그리 상상해보곤 했다.

여기 앉아 인삼차를 드시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라디오를 들을 때의 아버지는 고독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선비 풍의 외모도 그렇고, 아버지가 꿈꾸는 이상향은 남루하고 구차한 현실과는 거리가 몹시 멀었는데, 웬일인지 그 점이 내 가슴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몰래 아버지를 훔쳐보곤 했다. 뭔지 모를 일로 호되게 야단맞고 눈물을 찔끔거린 일쯤은 까맣게 잊은 채.

「형제는 수족이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 삼국지의 유비가 장자를 빌어, 목숨 걸고 자기 아들을 구해온 관우에게 했다는 이 말을 아버지는 귀가 솔도록 반복하셨다. 의복은 꿰매 입으면 된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라도 갈아 입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세상에서 엄마나 우리들의 존재는 그렇게 하찮았다. 엄마는 이런 아버지를 애증의 감정으로 대하셨다. 우리들이 안락의자 위에 앉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못하도록 몹시 단속하시는 반면, 아버지 몰래 발길질을 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때로는 아버지 보란 듯이 노골적이어서 가라앉던 풍파가 다시 일기도 했다.

*박래품(舶來品) : 다른 나라에서 배로 실어온 물품

두 번째는 둥근 나무밥상이다. 빛바랜 검은 바탕에 테두리가 붉은 이 밥상은 우리 가계사의 오랜 증인이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는 이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훈화를 들었다. 주로 효에 관한 말씀이 많았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들어 왔으니 외울 법도 하건만 지금 기억하는 거라곤 몇 가지 고사뿐이다. 병석에 누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무명지를 끊어 피를 받고 허벅지 살을 베어 드렸다는 효자 효녀 이야기. 종아리를 치는 노모의 매가 젊은 날처럼 힘 있지 않다고 해서 아들이 울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배고픈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서는 금과옥조의 말씀도 빛을 잃기 마련이다. 게다가 엄마는 살림이 제 아무리 궁할 때라도 구운 조기나 간고등어찜 등을 아버지 앞에 꼭 올렸고, 우리들이 사랑 받아 마땅한 행실을 보였을 때는 한두 젓가락씩 맛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자꾸 박탈 당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쪽으로 가는 눈길을 내 밥공기 위에 잡아두느라 애를 많이 먹었고, 그럼에도 너무 자주 흘끔거려 그에 합당한 꾸지람을 또 듣기도 했다.

어버이가 언제까지 자식들 곁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니 살아계실 제 효도라, 아버지는 그렇게 장탄식하시곤 했다. 밥상머리 교육을 소홀히 하면 후레자식이 된다는 것을, 효를 모르는데 후일의 입신양명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반겨줄 부모가 없으니 그조차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인데……

큰오빠는 잔뜩 부운 볼에 눈을 내리깔았다. 작은오빠는 담담했고 나보다 두 살 위의 언니는 분위기에 질려 초장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거나 뜬금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슬프게 만든 스스로를 혐오하려 애썼지만 솔직히 이 고역이 언제 끝날지 조바심뿐이었다. 참을 수 없이 다리가 저렸다. 억울하다는 것이 공통의 정서였다. 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식들은 차례차례 목침 위로 올라가 종아리를 맞았다. 그런 뒤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간 것이 차갑게 굳은 꽁보리밥뿐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 둥근 밥상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역할은 주로 엄마가 맡았다. 엄마의 눈에 아버지는 평생 흙을 딛지 않고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산다는 어치새였다. 그 반작용이었겠지만, 엄마는 천국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다고 믿는 분이었다. 웃을 때 돈,돈, 하며 웃었고 울 때도 돈,돈, 하며 울었다. 둘러앉은 자식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거리낌없이 하셨다. 집안은 일찌감치 가루가 되었다. 아버지의 홀이 이끄는 것은 한 떼의 모래바람뿐이었다. 우리집 회초리가 유독 모질었거나 아버지가 우려하셨던 후레자식유전자가 우리 핏속을 정말 흐르고 있거나인데, 어느쪽이든 뼈아프긴 마찬가지다.

지금도 부모님의 그림자는 긴 손가락을 뻗어 우리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특히 언니.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어 청춘을, 온 인생을 희생해온 언니는 현재 잘 살지 못하고 있다. 회피와 죄책감의 반복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동생도 있다. 한때는 무풍지대라고 부러워했던 아버지의 무릎 위야말로 태풍의 눈, 효 사상의 막강한 영향권 내에 있었다. 자칭 황금도사, 늘 담담하다고 생각했던 작은오빠의 소망은 철학관을 때려친 뒤 여기저기 바람처럼 떠돌다 스러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인생은 누군가의 말처럼 운명이거나 허무이거나, 비극이거나 희극일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와 큰오빠의 경우는 주님을 만났다.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것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다. 구약은 더 단호하여, 거역하는 자식은 돌로 쳐죽이라 하셨다. 빠져나갈 길 없는 말씀 앞에서 나는 한없이 주춤거렸다. 마침내는 부모님 또한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실마리가 풀리면서 겹겹 세월 아래 묻혀 있던 상처들이 환한 빛의 세계로 이끌려 나왔다.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내게 한 꿈을 또 보여주셨다. 그 꿈 속에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함께 있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어찌하여 죄가 되는지 가슴 절절히 느끼며. 그늘이 깊어, 상처가 깊어 은혜가 더욱 깊노라는 고백을 나의 주님께 올려드린다. 지구촌



내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의 효도에 관한 생각 엿보기-

부모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했던 시절. 부모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부모님이 있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었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과 섬김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릴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효도하기란 쉽지 않다. 분명 부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자식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대를 운운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4월 중순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효도'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설문조사하였다. 효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엿보며 아무쪼록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자라나 하나님 안에서 효도함으로 자손대대로 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한다. 지구촌

1. 내가 생각하는 '효도'

1위. 어머니 도와드리기
(설거지, 청소, 신발 정리 등) 35명
2위. 부모님 기쁘게 해 드리기
(안마, 마사지, 착하게 사는 것,
공부 열심히 하기 등) 27명
3위. 편찮으실 때 간호해 드리기 20명
4위. 내 일을 스스로 하는 것
(숙제, 내 방 정리, 실내화 빨기 등) 19명
5위. 부모님께 공손하게 해드리기 11명
<기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일을 대신
해 드리는 것, 부모님 안아드리기 등 8명

2.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효도의 선물

1위. 생신날 용돈 드리기 35명
2위. 물건 사드리기
(선글라스, 금목걸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집 사드리기,
책, 안마의자, 아메리카노 커피, 다이아몬드, 청소기)
31명
3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해 드리기
(공부 잘하는 것, 내 방 정리 잘 하는 것, 학교 생활 잘
하는 것, 형제자매하고 싸우지 않는 것 등) 26명
4위. 부모님께 날마다 '사랑해'라고 말해 드리기
(이유는 아빠 엄마가 좋아하셔서, 웃으셔서) 11명
5위. 안마를 날마다 해 드리기 9명
<기타> 발 씻겨 드리기, 안마쿠폰 5장 만들어 드리
기, 책 읽어 드리기 등 8명

3.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치매에 걸리시거나 움직이지 못하실 경우

1위. 계속 모시고 살 것이다.(힘들면 간호해 줄 간병인을 시킬 것이다.) 42명
2위. 세계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해 드릴 것이다. 23명
3위. 형이나 언니 동생과 함께 번갈아가며 돌볼 것이다. 21명
4위.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시켜드려서 살게 할 것이다. 20명
5위. 의사가 되어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릴 것이다. 4명



효도 하고 계신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속에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가 되게 해주신다. 성경말씀은 자녀됨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효도(孝道)'라고 부른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구촌비전에서는 시니어지구 분들께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 때 효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 42개 목장, 약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 위해 보기와 예시를 제시하지 않은 열린질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 때 효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설문조사 결과

1위. 자녀로부터 전화 올 때 (카톡으로 서로 소식 전할 때)
2위. 부모의 마음 알아 줄 때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이해 해 줄 때)
3위. 자녀들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올 때
4위. 말씀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5위. 맛있는 식사 함께 할 때
6위. 자동이체로 용돈줄 때
7위.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8위. 부모가정의 생활용품을 챙겨줄 때
9위. 부모와 다퉜어도 먼저 다가와 줄 때
10위. 부모의 부탁 흔쾌히 순종할 때



응답결과는 의외였다. 무려 23개 목장 190여 분께서 자녀로부터 안부 전화 올 때를 효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6위, 아시아 2위로 기록된 우리나라.

인간의 소통의 장벽을 없애준 휴대전화 그리고 스마트폰. 그러나 우리는 소통의 위한 도구인 이것을 가족과의 소통 보다는 세상과의 소통에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AI, 음성인식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마음을 인식해주는 기술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분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스마트폰의 메시지보다, 사랑스런 음성으로 안부를 묻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욱 듣고 싶어 하시리라.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며 효도하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 사랑해요"라고 말입니다. 지구촌

-지구촌비전 편집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허정식A 집사
작은천국목장



"명절 때 시댁에 안 갔어요! 그래서 완벽한 명절을 보냈죠!"

영화감독과 같은 여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아들로써 함께 하는 아내의 반응도 영화의 주인공 며느리 진영과 같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늦은 밤 살림과 육아에 지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영화 "B급 며느리"를 함께 보았다.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감독의 차가운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 "아이의 옷 문제"로 인해 점점 본격화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 부끄러움 없이 점점 커지는 자신의 욕심들, 독립적 인격체인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과 행동들,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은 채 서로의 성격과 기질, 개성을 바꿔보겠다는 시도와 노력의 결과로 며느리는 B급도 안 되는 F급이라고 분통을 터트리시는 시어머니, 중간의 입장 특히 한 가정의 남편 역할을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남편, 지금은 너무 비참하다면서 오열하는 며느리의 장면에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현실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적잖은 충격과 동시에 충분한 공감으로까지 이어졌다.



영화는 나름 화해 모드로 끝이 나지만 이상하게도 영화를 보는 내내 힐끗힐끗 아내를 향해 티 내지 않던 나의 시선들! 아내의 작은 반응에도 더욱 크게 놀라는 나의 행동들이 결국 스스로에게 자백이라도 하듯이 그동안 아내와 자녀에게조차 웃음과 만족보다는 가식적이고 식어버린 마음으로 아픔과 상처를 더 많이 준 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영화가 끝난 이후 무엇보다 영화 얘깃거리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내가 속한 현실의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순도 200% 현실의 상황을 영화의 주인공처럼 만들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는 어떻게 마음의 자세들을 바꾸어 습관 해 나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나를 바꾸지 않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나부터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와 같이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자녀를 대하는 경청의 자세와 함께하는 시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개성과 기질은 존중하고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하되 합리적인 탐욕으로 판단, 일 처리하지 않기,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겠다는 다짐과 남을 독립적인 존재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마음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의 마음으로 관계를 차갑게 만들어 가기보다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하여 관계를 회복케 하는 사랑의 화신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해도 상대방을 향한 A급 안목과 행동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매일 삶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 없이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가정의 달 5월! 오늘 바로,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쁜 꽃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아참! 제일 중요한 선물이 빠지면 안 되지… 지구촌

2018 Next Gen 목자 아카데미



넥젠 목자 아카데미가 '행복한 교육, 행복한 목자' 주제로 다음세대를 섬기고 계신 교육목자, 젊은이목자, 동역교회 목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강의는 2인 2색으로 안민 총장님께서 '행복한 교육'으로 강의를 진행 하시고, 진재혁 담임목사님께서 '행복한 목자'라는 주제로 강의 하셨습니다. 특히 목자님들을 위한 공연으로 이지훈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택강의는 현시대적 필요와 목양적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11개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목자님들에게 다음세대를 향한 열정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세대를 향한 관심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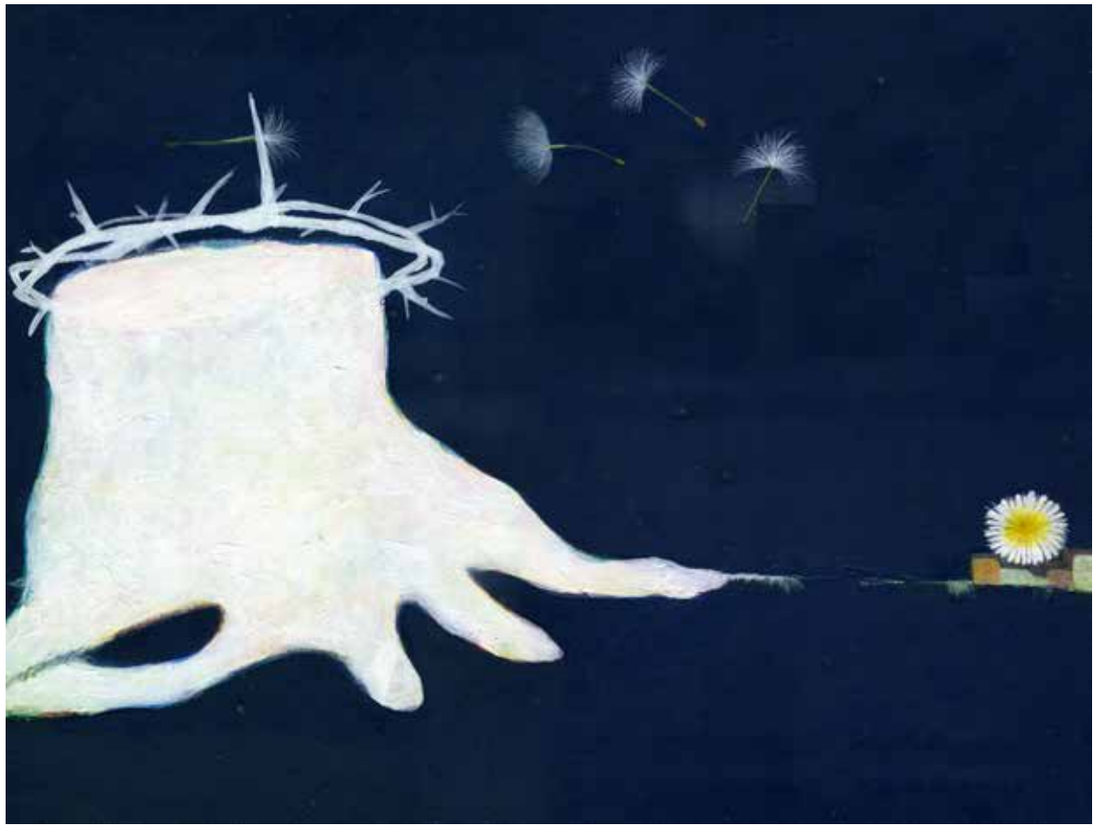






그루터기

박지영
지구촌교회 전문인미술선교회



작년 겨울, 나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불혹', 마흔이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여전히 미술작품만 보면 가슴이 뛰고, 나의 생각을 화폭에 담고 싶은데 지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만족한 채,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은 묵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었고, 나에 대해 가장 잘 아시며,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재능, 달란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지구촌교회전문인미술선교회(GAM)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KCAF(크리스천 아트피스트)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7)**'**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끝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사랑의 빛은 세상을 밝혀줍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역의 한 죄인의 죽음으로 보였던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원의 빛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빛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안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을 위해 열매와 자신의 몸통까지 내어주다가 이젠 그루터기 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것조차 그의 쉼터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입니다. 그 옆에 작은 민들레가 있습니다. 작은 포자가 꽃씨가 되어 날아가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민들레처럼,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 생명은 인생을 마무리하면, 끝이 나지만, 남을 위해 산 다면, 또 하나의 생명, 아니, 수십, 수 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플루트동아리 “아도르”

기향미
플루트동아리 회원







파릇한 봄내음이 가득한 4월입니다. 아마도 지구촌교회 평생교육원의 플루트반 초급수업을 찾아온 때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아이가 쓰던 플루트가 있었고 제 나이 50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어느정도 아이들도 다 키웠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배움도 갖고 싶었습니다.

플루트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갔을때 선생님과 몇 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다른 분들은 이미 플루트 소리도 잘 내고 계셨고 저는 난생처음이라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힘겹고 민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수업 하는 것이었지만 머리가 이상하게 아팠고 음이 이탈될 때마다 창피하기도 했고 거울을 보고 입모양을 보며 연습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시작한 수업이라 좀 나태한 마음도 들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친구와 함께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갈 때 보다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선생님께서는 동아리 “아도르”를 만드셨습니다. 플루트를 좀 많이 공부한 분도 계시고 음악을 전공한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셨지요 그냥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거지” 하면서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연습해 가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지만 수업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연습하자는 마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미혼인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아줌마들인 저희들에게 알맞은 비유와 설명으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QT로 플루트 연주에 대한 공감과 교감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르는 성남시 평생교육박람회, 분당 노인복지관, 샘물교회 말아톤복지재단, 러스크병원, 성남시청 음악회를 통해 연주를 경험했습니다. 지구촌교회 내에서도 로비 연주회, 영아촌예배, 아름주일예배, 지구별예배, 8시 대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요. 아도르가 지구촌교회 교인만으로만 구성되었지는 않지만 서로 연주 때마다 자원해 주시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도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도르는 이미 5~6년 이상 같이 해 온 분들이라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믿지 않는 회원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께서는 아도르 회원 개개인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셔서 연습 때마다 포인트레슨으로 기막히게 맞춤레슨을 하시지요. 요즘 아도르는 You raise me up 찬양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아버지 모임 후기

아버지상을 세워가는 시간



이승환
정세원, 이주원, 시영, 가온 | SDG 홈스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는 책 속에 앨리스와 체셔 고양이와의 대화가 생각이 난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어." "난 어디든 상관없어"
고양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나 가도 돼"
앨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어디든 도착만 한다면."
고양이가 말했다. "아, 넌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어있어.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닿게 되거든."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고 싶은 지도 모른 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걷다 보면 어디든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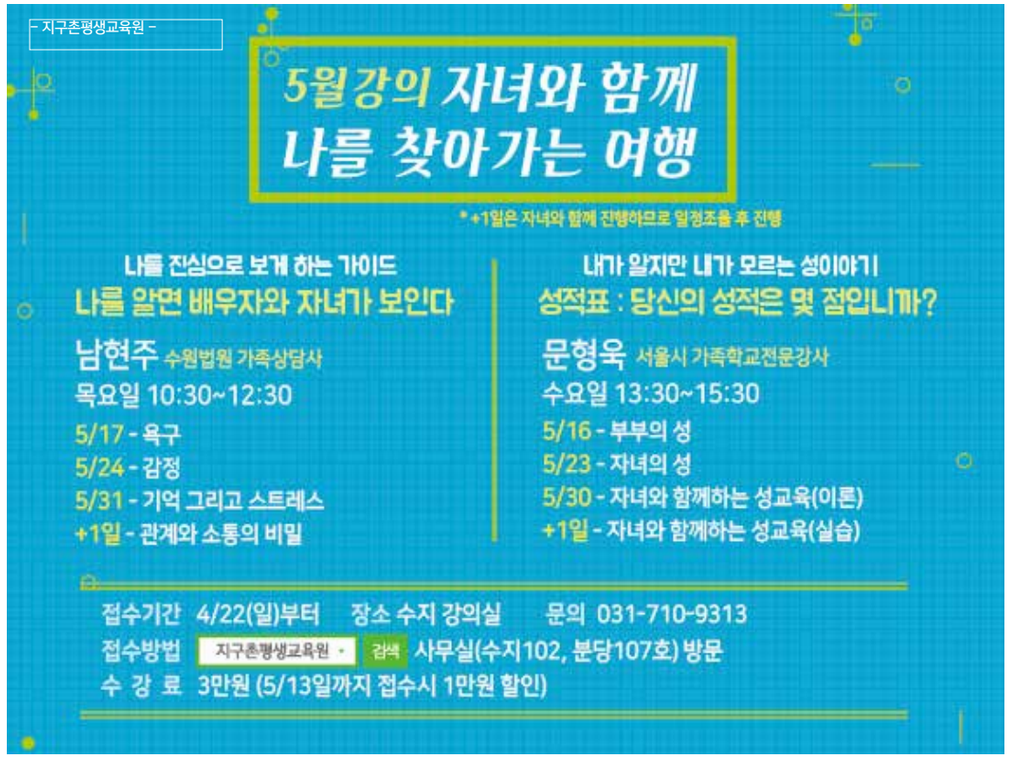
기독교 위에 대학교가 있고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바라는 시대, 맘몬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 마치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휩쓸리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방향성 없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든다. 맘고리즘(Mom+Algorithm)에 의해 움직이는 자녀양육의 시대, 얼마 전까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조부모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우스개 소리가 떠돌던 적이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그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경제적 필요만 채우는 수동적인 기능인에 머물렀다. 홈스쿨러로 부르심을 받은 가정의 아버지들이지만 정작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말과 함께 돌아오는 머뭇거림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막연한 바람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결국 꼰대(?)의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O(ONE)조, It조, 고민하는 형제들조, Home+조, 들러리(를 벗어나고 싶은 아빠들의)조로 나누어 토요일 아침 아버지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각 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주변인에만 머물러 가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마음 속에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됨에 대해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분주한 한국의 아버지로서 '한국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하는 자기위안, 자기연민이 아닌 아버지상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다. 아버지들과의 만남 속에 내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며 부모 또한 자녀의 거울이다. 자녀 양육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20세기의 아버지와 21세기의 자녀들이 만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가정들이 되길 소원한다. 아버지들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주도적인 아버지들이 되길, 수동적인 기능이 아닌 적극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길 기도한다. 이 시대 아버지 상을 세워가며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소원한다. 더 나아가 아버지들의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어 더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모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구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며
부모 또한
자녀의 거울이다.
자녀 양육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손석호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손석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취미·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담당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매일 평생교육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2,000여 명의 어르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열정으로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일이 저의 역할입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지만, 하루 평균 100명의 어르신과 대화하고 어려움을 들어드리는 날들이 일상이 되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습관적인 친절과 인사를 건네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어르신 한 분과의 만남이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복지관 이용이 처음이신 듯하여 복지관을 잘 이용하고 적응하시도록 이것저것 자세하게 복지관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도 제 설명을 잘 이해하신 듯 만족스러워하시며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그 어르신이 다시 복지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르신은 복지관에 처음 방문하였다면서 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다시 설명이 듣고 싶으신가 보다' 하면서 다시 복지관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어르신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면서 귀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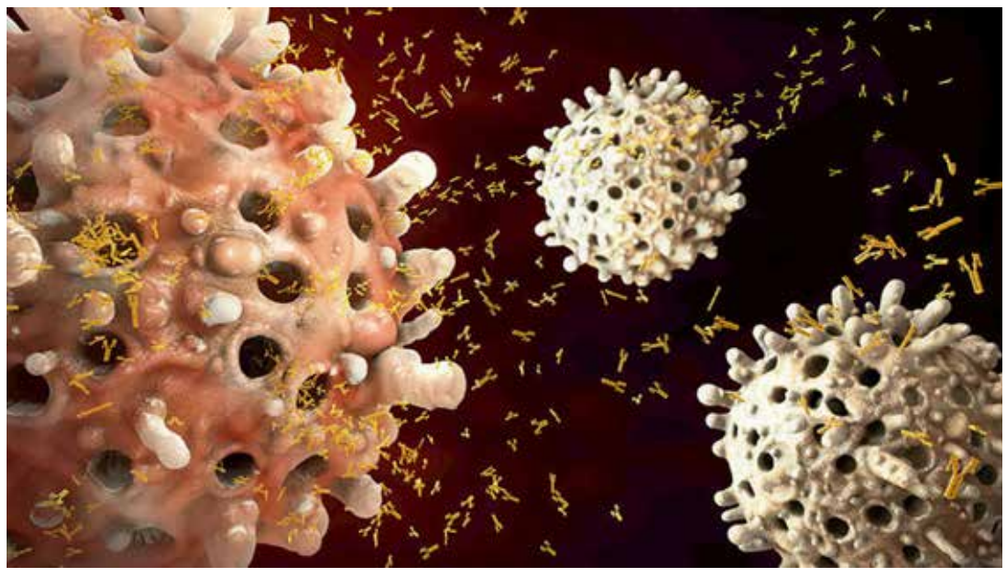
다음 주에도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복지관에 처음 왔다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셨을 때, 그제서야 저는 이 어르신에게 치매 증상이 있고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어차피 복지관 이용 안내를 설명해 드려도 다시 잊어버리실 텐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다시 설명해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비록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다면 노력과 시간이 들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이전과 같이 어르신에게 복지관 이용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어르신은 계속해서 복지관에 방문하셨고 매번 같은 질문을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던 어르신이 저의 이름과 얼굴은 또렷이 기억난다면서 복지관에 방문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는 어르신이 '이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니 순간 저의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매일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에게 행복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겪으면서, 어르신 그리고 주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친절'이라는 행위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사역의 현장에서 '친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듯한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에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르신들에게 따듯한 세상 안에서 친절한 기억을 만들어 전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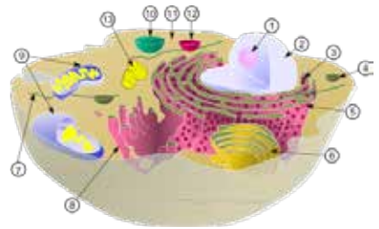
B세포(백혈구의 한 종류, 방어 항체들을 분비함)는 자신의 DNA를 세포 밖으로 방출하여 유해한 미생물의 존재에 관한 경보신호를 주변 면역 세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백혈구는 침입자경보를 위한 DNA '망(web)'을 론칭시킨다
White blood cells launch DNA 'webs' to warn of invaders

-새로 발견된 면역방역 경보시스템-

-New warning system discovered in the immune defence-

인체의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호중구(Neutrophil), 호산구(Eosinophil), 호염기구(Basophil), 단핵구(Monocyte), 그리고 림프구(Lymphocyte)의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또한 림프구(Lymphocyte)는 T세포와 B세포, 그리고 자연살해(NK)세포로 나뉜다. 이 중 B세포는 필요에 따라 형질세포 등의 분비세포로 변화해서 다량의 항체(면역글로불린, 항체글로불린)를 분비하여 인체로 침입하는 병원성 박테리아 등의 항원에 대항하는 체액성면역(humoral immunity)을 담당한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적혈구는 그 안에 핵(核)이 없는 세포인 반면 백혈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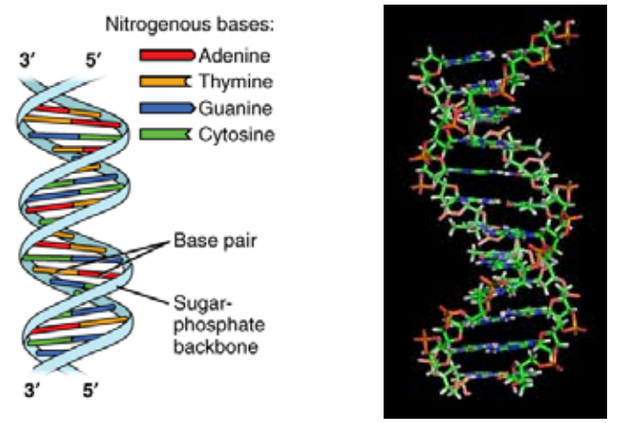


▲세포 모식도

인체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핵이 있는 세포(Cel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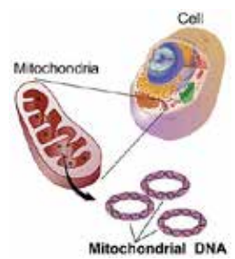
왼쪽의 그림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모식도이다. 세포 내 구성 물질 중 1번으로 표시된 것은 유전자가 들어 있는 세포핵(核, Nucleus)이고 9번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의 생산 공장 역할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이다.

이번 지구촌Topic 제목에 나타나 있는 DNA는 우리말로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이다. 세포(Cell)의 핵(Nucleus) 안에 존재하므로 핵산(核酸)이라고 불리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다. 당(糖)-인산(燐酸) 골격(Sugar-Phosphate Backbone)에 결합되어 있는 핵염기(Nucleobases, Adenine, Thymine, Guanine, Cytosine)들이 수소결합에 의한 염기쌍(Base pair: A-T, G-C)을 이루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다란 이중 나선(double helix) 구조를 이룬다. DNA의 유전 정보(염기서열)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단백질들은 우리의 몸을 이루며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게 한다. 어느 한 단백질에 해당하는 DNA의 염기서열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염기가 잘못되었다면(유전자 변이),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질병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잘못된 DNA 염기서열이 자손후대에 유전되는 경우 소위 유전질환으로 나타나게 된다.



▲DNA 이중 나선 구조 모식도

DNA는 단지 핵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모식도에서 9번으로 표시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도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DNA(mtDNA)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작은 원형 구조의

염색체를 이룬다. 그리고 이 mtDNA는 핵(Nucleus) 내부의 DNA와는 달리 단지 난소 세포를 통하여 모계로만 유전된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실리 스트링(Silly String)이라는 게임에 관한 것이다. Silly String 에어로졸 캔으로부터 스프레이 되어 나오는 색색의 액체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서 살짝 굳어 끈끈하고 탄력성 있는 가닥(스트링)이 되어 상대편의 몸에 들러붙어 아이들이 서로 뿌리며 재미있게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캔에서 마구 뿜어져 나온 이들 가닥들은 자연스럽게 망(web)을 형성한다.



이번 지구촌Topic의 제목, 「백혈구는 침입자경보를 위한 DNA '망(web)'을 론칭시킨다」는 이 실리 스프링 게임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인체에 침투한 바이러스 혹은 다른 유해한 미생물체(병원체)를 최초로 감지한 어느 정도의 백혈구들은 보유하고 있는 DNA 중 일부를 마치 실리 스트링 게임에서 보는 것 같이 세포 밖으로 스프레이 한다. 이때 분사되어 나온 DNA들은 서로 얽혀 망(web)구조를 이루며 주변의 세포들에게 들러붙어 그들에게 침입자가 있다는 위험경보를 보낼 수 있다. 스웨덴 링케핑 대학교(Linköping University, LiU)의 비에른 잉겔슨(Björn Ingelsson) 교수 등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된 이러한 면역방역 시스템은 금년 1월초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논문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이 연구 논문에서 밝혀진 DNA 망(web)으로 이루어지는 경보시스템은 인체에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이에 대한 인체의 방어반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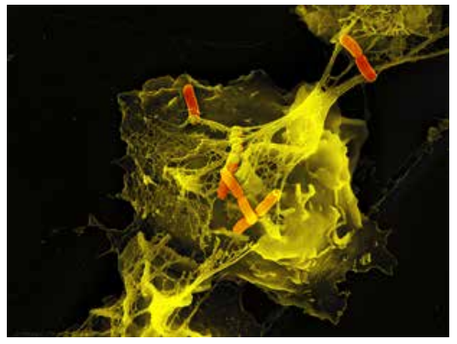
Lymphocytes eject interferogenic mitochondrial DNA webs in response to CpG and non-CpG oligodeoxynucleotides of class C

Björn Ingelsson[a], Daniel Söderberg[b], Tobias Strid[a], Anita Söderberg[a,1], Ann-Charlotte Bergh[a], Vesa Loitto[a], Kourosh Lotfi[b,c], Mårten Segelmark[b,d], Giannis Spyrou[a], and Anders Rosén[a,2]

[a]Department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Medicine, Linköping University, SE-581 85 Linköping, Sweden; [b]Department of Medical and Health Sciences, Linköping University, SE-581 85 Linköping, Sweden; [c]Department of Hematology, Linköping University, SE-581 85 Linköping, Sweden; and [d]Department of Nephrology, Linköping University, SE-581 85 Linköping, Sweden

"이것은 면역세포들이 병원체 감염을 감지하여 병원체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연구 논문에는 관여하지 않은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선천면역학자 폴 큐브스(Paul Kubes) 교수는 언급하고 있다.

우리 인체의 몇 가지 세포들이 직접 감염원과 싸우기 위해 DN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실은 이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2,000년대 초부터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백혈구 중의 일종인 호중구(好中球, Neutrophil)라는 면역 세포는 자신의 DNA를 세포 밖으로 사출하여 「호중구 세포 외(外) 트랩(**N**eutrophil **E**xtracellular **T**raps, NET)」이라는 끈끈한 가닥으로 된 그물망을 형성한다. 이 NET는 병원체를 포획하여 병원체가 더 이상 퍼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소적으로 매우 높은 농도의 항균 물질(antimicrobial agents)을 확보하여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들을 사멸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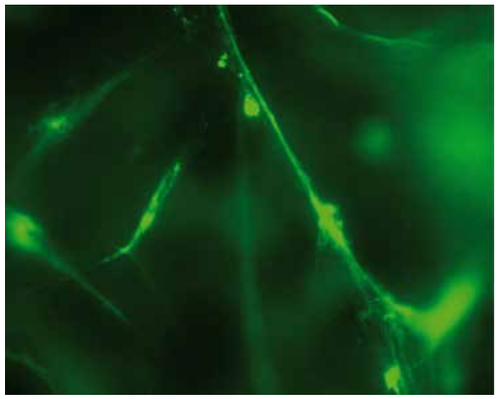
▲ 호중구에 의해 형성된 NET(노란색)에 포획된 이질균(菌)

흥미로운 사실은 이 NET가 박테리아 등을 비롯한 병원체를 포획하여 죽이는 작용을 갖고 있는 것 이외에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암 관련 혈전증(cancer-associated thrombosis) 등의 발생에 매우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NET는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함과 동시에 아주 해로운 작용을 하는 마치 좌우에 날선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암과 유방암에서 NET가 암의 확산을 촉진한다는 연구 논문들이 최근 발표되었다. 그러나 NET가 어떠한 작용기전으로 암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LiU의 비에른 잉겔슨 교수 (생화학 전공)와 안덜스 로젠 교수 (면역화학 전공)가 이끄는 연구팀은 백혈병의 한 유형인 B세포 백혈병에서 NET가 암세포로 변화된 백혈구(cancerous white blood cells)의 성장 또한 촉진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새로운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동안, 이 연구자들은 암세포(비정상 B세포)들을 백혈병 환자들의 몸에서 채취

하여 실험실 페트리접시(lab dishes)에서 배양시킬 때 이 비정상 B세포들이 보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백혈병의 원인인 비정상 백혈구(B세포)들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의 DNA들에서 잘려 나온 작은 DNA조각(단편)들과 반응할 때 호중구의 NET와 흡사한 DNA 다발들을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 현상이었다. 이 연구자들이 이 DNA 다발을 DNA 망(web)이라고 이름 붙였다. 연구진은 이 DNA 망이 단지 백혈병 B세포들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의 정상 B세포들도 다수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에서 유래하는 DNA조각(단편) 등의 특이 분자 패턴(molecular pattern)들과 반응하여 자신의 DNA를 방출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B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혈구들 역시 이러한 DNA 망(web)을 형성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 면역세포들로부터 방출된 DNA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이 DNA는 핵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래한 미토콘드리아 DNA(mtDNA)인 것으로 밝혀졌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의 비정상 B세포 외부의 DNA 망(web)

이렇게 형성된 미토콘드리아 DNA(mtDNA) 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중구 세포 외(外) 트랩(NET)과는 구별된다. 첫째, mtDNA 망에는 NET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살균 단백질들(microbe-killing proteins)이 존재하지 않는다. mtDNA 망(web)이 살균 단백질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 몸을 병원체로부터 방어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된 사실은 mtDNA 망(web)이 살균 단백질을 이용하는 대신 면역세포들 간의 신호기능(signal function)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초로 위험사항을 인지한 백혈구들은 mtDNA 망(web)을 만들어 위험 경보신호를 주변의 다른 백혈구들에게 전달하여 신호를 전달받은 다른 백혈구들이 타입 1 인터페론(Interferon type 1)이라는 면역조절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작동시킨다. 백혈구들로부터 분비되어 나온 타입 1 인터페론은 또 다른 백혈구의 일종인 거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을 자극하여 이들로 병원체들을 사멸시켜 제거케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면역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수용체 분자가 면역세포들을 mtDNA 망이 전달한 경보신호에 응답하게 하는지를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다.

둘째, 호중구들이 그들의 DNA를 방출하여 NET를 형성한 후 보통 곧 사멸되는 것에 비해 mtDNA 망을 형성하는 세포들은 DNA를 사출하고도 살아남는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는 mtDNA 망(web)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DNA가 방출된 후에도 DNA가 얼마만큼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로젠 교수는 말한다.

셋째, LiU 연구자들은 mtDNA 망(web)이 불과 몇 분 안에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호중구 기반의 망(NET)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무척 신속한 방어 반응(quick response)이다. 다른 면역 방어 시스템은 가동되는데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병원체에 대한 방어 시스템으로서의 mtDNA 망(web)의 발견은 mtDNA의 방출을 줄일 수 있는 향후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잉겔슨 교수는 피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도한 mtDNA는 염증(inflammation)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체의 병원체 방어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뜻하지 않게 mtDNA가 분비되었다거나, 일단 분비된 mtDNA가 역할을 마친 후 혈중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비에른 잉겔슨(Björn Ingelsson) 교수

몇몇의 자가면역 질환들과 여러 종류의 암 질환에서 mtDNA 망에 의해 활성화된 신호 전달 물질인 타입 1 인터페론(Interferon type 1)이 높은 농도로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이 연구자들은 분비된 mtDNA의 양을 측정하여 경보신호로서 해석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들 질병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다. 지구촌

목장모임을 풍성하게 해 줄
Tea & Dessert – 세 번째 이야기

윤경순 성도
분당3지구, C판교5목장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창세기 18:5

아브라함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다. 교회와 목장과 우리 가정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세를 묵상한다. 정성껏 대접하고 손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 그리고 댓가를 바라지 않고 **'지나가소서'**라 하며 그저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라고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삶. 흔히 'give and take'는 세상의 이치이다. 값 없이 받았으므로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흘려보냄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면서.

이번 호에서는 풋풋한 사과향이 나는 카모마일 허브티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촌

품종 카모마일(Chamomile)은 국화의 한 종류

저먼카모마일	로만카모마일
매년 씨앗을 뿌려서 재배하는 한해살이 풀	여러해살이 풀로 번식력이 강해 잔디로도 이용
4~5월에 꽃이 피며, 한 달 동안 언제나 큰 꽃과 작은 꽃, 활짝 핀 꽃과 시들어 가는 꽃 등을 볼수 있음	7월에 꽃이 피며, 저먼카모마일과 마찬가지로 한달 동안 꽃을 볼 수 있음
갓 핀 작은 꽃을 꽃이 피는 순서대로 수확하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말려 밀폐 보관	

효능
1. 진통이나 염증 해소, 감기, 위장병, 불면증에 효과
2. 아줄렌(azulene) 성분이 있어, 달여서 만든 약을 천에 적셔서 상처나 염증 부위에 대고 찜질을 하면 효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1. 생화 그대로 차를 우려내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잔의 차를 위해 5~6송이의 꽃 사용
2. 품질 좋은 허브는 2~3송이로도 진한 차를 얻을 수 있음
3. 일반적으로 저먼카모마일(품종)이 허브티로 인기가 있음
4. 생화 그대로 허브티로 우려내면 말린 허브보다 신선한 향을 더 짙게 느낄 수 있음

<참고문헌>
· **오후의 행복 티타임** – 홍차, 녹차, 허브차, 한방차 54가지 무작정 따라하기 / 진수수, 임현정 지음 / 도서출판 길벗
· **발효가 필요없는 퀵브레드 100** / 이주희 지음 / 도서출판 혜지원

카모마일 허브티 우려내기

재료 카모마일 5~6송이, 끓인 물 90℃, 150~200cc
우리는 시간 : 2분 이상

1. 물을 팔팔 끓여서 티포트에 넣어 예열한 뒤 따라 버리고 카모마일 넣음
2. 끓인 물을 다른 그릇에 한 번 옮겨 담았다가 티포트에 부어 물의 온도를 5℃정도 낮춤
3. 티포트 위에 티코지를 씌워 보온하고, 2분 후 티포트를 살짝 흔듬, 티포트 안에 인퓨저를 끼워 넣었다면 인퓨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음
4. 30초 정도 더 우린 후에 찻찬에 따라냄



목장모임을 풍성하게 해 줄 Dessert - 롤 샌드위치

준비할 재료(4인 분량)

- 식빵 8장
- 파프리카(빨강, 노랑, 주황)1/2개씩, 오이 1/2개
- 슬라이스치즈, 햄 8장씩
- 크래미 300g, 머스타드소스 50g



만드는 순서









1. 식빵의 가장자리를 자른 후 밀대로 밀어 납작하고 길게 만든다.
2. 파프리카 채썰기, 오이 돌려깎이 후 채썬다.
3. 크래미를 찢은 후 머스타드소스에 버무린다.
4. 김발위에 식빵을 깔고 치즈,햄-> 채썬채소-> 버무린 크래미를 올리고 돌돌 만다.
5. 꼭꼭 눌러 말은 후에 랩으로 감싸 놓는다.
6. 한입크기로 썰거나 어슷 썰어 세팅한다.

효과

- 야채는 취향에 따라 당근, 아보카도 등을 넣어도 좋다.

JIGUCHON NEWS

교회 내·외부 소식 및 행사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치유의밤

4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수지채플과 분당채플에서는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치유의 밤'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진재혁 담임목사님은 마가복음 1:40~42, 2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치유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순서에 이어 안수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영구제직회원들은 '은혜아니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3N3G비전 사역사진 전시회 - 전시일정 : 수지채플갤러리 2018.5.5~5.18 분당채플갤러리 2018.5.19 ~ 6.1

지구촌교회의 핵심사역인 3N3G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의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담은 '3N3G비전 사역사진 전시회'가 수지채플과 분당채플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봉사하는 미디어사역팀원들이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앵글에 담아 낸 26점의 사진작품을 통해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말씀 퍼즐

담임목사님 설교내용을 되새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다시 들어볼 담임목사님의 설교는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12)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13)목자로 살라"** 입니다.

퍼즐에서 설교말씀을 찾아보세요.
사선, 직선, 역방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설교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너	희	중	에	있	는	하	나	님	의	양	무	
베	그	러	므	로	뜻	대	로	죄	인	이	리	
오	드	그	리	스	도	의	이	소	창	는	를	
히	복	로	름	으	로	치	명	불	조	그	치	
려	음	지	전	욕	을	당	하	면	주	의	되	
너	을	아	는	서	복	있	는	자	께	영	억	
희	순	니	자	너	판	본	문	점	의	광	지	
가	종	하	게	희	평	화	새	로	탁	을	로	
그	하	쁘	회	위	정	작	시	운	할	이	하	
리	기	안	전	에	자	상	회	탁	지	름	지	
스	계	심	이	로	다	목	담	의	어	다	말	
도	고	난	에	참	여	하	는	것	으	로	고	

응모방법
① 보기처럼 정답을 퍼즐에 표시
② 스마트폰으로 퍼즐 촬영
③ 휴대폰 MMS메시지 전송
M. **010-3417-9301**

축하합니다!! 4월호 당첨자
임동우A 김인정A 탁진형A

당첨자발표
당첨된 분들에게는 담임목사님 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구촌비전 4월호 설교말씀퍼즐 정답

각	무	엇	보	다	도	뜨	겁	게	서	로	하	
각	사	랑	할	지	니	을	신	정	는	희	사	
은	차	리	고	근	신	하	여	기	도	너	봉	
사	아	내	들	아	이	와	같	이	순	로	로	
를	자	기	남	편	에	게	순	종	례	므	서	
받	너	희	의	두	려	워	하	며	자	러	이	
은	정	결	한	행	실	을	봄	이	라	그	같	
대	반	거	룩	한	부	녀	들	도	단	니	기	
로	그	려	외	모	행	내	면	장	네	으	지	
하	릇	놋	자	삶	복	소	종	나	그	왔	청	
나	만	물	의	마	지	막	이	가	까	이	한	
님	의	여	러	가	지	은	혜	를	맡	은	선	

4월15일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12) Living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베드로전서 4:12-19)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 삶 가운데 두 가지 고난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1. **고난, 하나님께 의탁 하라**
성경에는 믿음 가운데 고난을 겪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2. **고난, 기쁘게 여기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올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소망 중에 바라는 고난의 삶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3. **고난(힌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4월22일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13) Living as Good Shepherds: 목자 로 살라! (베드로전서 5:1-4)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말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부정과 긍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합니다.

1. **목자는 하나님 의 소명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목자의 삶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 가운데 참여함을 말씀합니다.
2. **목자는 양 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말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섬기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양들에게 기꺼이 하는 목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3. **목자는 본 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은 양 무리에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말합니다. 목자의 태도와 방법이 거만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수지채플 시간	수지채플 장소	구 분	분당채플 시간	분당채플 장소
06:15	본당(4층)	1부 예배	06:15	그레이스홀 (지하1층)
08:00		2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3부 예배	10:00	
12:00		4부 예배	12:00	
14:00		5부예배(장년/청년2)	14:00	
		통일비전 주일 예배	14:00	그레이스홀 (지하1층)
16:00		6부 예배(Holy wave)	16:00	본당(8층)
18:00		7부 예배	18:00	
		영어 장년	10: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홀(B1층)
		영어 어린이	09:50	선교센터 글로리아홀(8층)
		영어 청소년	10:30	선교센터 다니엘홀(701호)
		영어 청년예배	14: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홀(B1층)
		일본어 예배	14:00	선교센터 소피아홀(8층)
		중국어 예배	10:00	선교센터 소피아홀(8층)
		중국어 청년예배	14:30	선교센터 햇빛마당홀(B1층)
		몽골어 예배	14:00	선교센터 글로리아홀(8층)
		이주자 예배	13:00	선교센터 글로리아홀(8층)
12:00	202호	아름 (어린이/청소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행복한동행 예배	12:00	B02호
		농아인 예배	10:00 14:00 15:30	B02호 본당 106호
10:00 12:00	110호	영아촌 (0세-36개월)	10:00 12:00	702호
	111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1호	미취학 연합촌(4세-7세)	14:00	701호
10:00 12:00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0호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207호	소년촌 (초5-초6)		712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10:00	202호(중1)	중등마을 (중1-3)	10:00	206호(중1)
	310호(중2-3)			210호(중2-3)
	311호	고등마을 (고1-3)		411호
12:00	310호	중등마을 (중1-중3)	12:00	206호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2:00	209호
11:30 19:30	본당(4층) 그레이스홀	수요예배	11:30 20:00	본당(8층)
05:00 06:00	그레이스홀 본당	새벽기도	05:00 06:00	102호 그레이스홀
20:30	본당(4층)	금요심야기도회	20:30	본당(8층)

수 지
목자모임(자매)
수10:00
(본당 4층)

목자모임
(형제,부부)
토06:40
(그레이스홀)

시니어지구예배
금10:00
(본당 4층)

분 당
목자모임(자매)
수10:00
(본당 8층)

목자모임
(형제,부부)
토06:40
(본당 8층)

시니어지구예배
금10:00
(본당 8층)

구 분	경기대채플 시간	경기대채플 장소	GMN채플 시간	GMN채플 장소	필그림하우스 시간	필그림하우스 장소	구리지구촌채플 시간	구리지구촌채플 장소
1부 예배							08:00	믿음채플(5층)
2부 예배							10:00	
3부 예배	10:00	텔레컨벤션센터	10:00	GMN채플(B1층)	9:15	피데스채플	12:00	
4부 예배	12:00	텔레컨벤션센터	12:00	GMN채플(B1층)	11:00	카리타스채플		
구리 청소년 예배							10:00	소망채플(6층)
구리 어린이 예배							12:00	소망채플(6층)
구리 미취학 예배							12:00	사랑채플(6층)
구리 수요예배							19:30	믿음채플(5층)
구리 금요비상기도회							20:30	믿음채플(5층)
구리 새벽기도							05:30	믿음채플(5층)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분당채플 4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지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필그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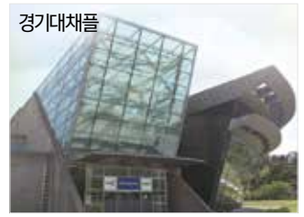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4번길 19 (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 팩스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촌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 (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의
❶**좌측 하단 지구촌비전**으로 들어가셔서
❷**원고접수 게시판**에
❸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보기 설정 필요



원고문의 | 김영기 장로 (ykkim@mju.ac.kr)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편집실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와 지구촌교회 어플**을 통해서도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10시, 12시, 14시, 16시 **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지구촌교회 어플

◀ 지구촌교회 어플을 설치하시면 **예배생중계, 지구촌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http://www.jiguchon.or.kr http://www.c3tv.com
라디오	'생명은 빛으로' 목요일 오전 9:00~9:30 서울극동방송(FM106.9)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5:30-6:00 [SKY LIFE(CH 183), QOOK KT (CH 236), BTV SK (CH551), U+TV LG (CH 180)] •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화 오전 5:30-6:00 [아날로그(CH 53), 디지털(CH 222)] • **CGN** 수 오전 7:00 진재혁 담임목사 / 목 오전 7:40 이동원 원로목사(영어자막) • **Cchannel** 목 오전 12:20 • **GoodTV** 주일 오후 2:30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니이가타 지구촌교회	639-2, Makio, Nishi-Ku, Niigata-Shi, Niigata, Japan	+81-25-201-8122
동경복음교회	2-45-9 Toukyoufukuinkyoukai, Higashinippori、Arakawa-ku, TOKYO, 116-0014, JAPAN	+81-3-3891-0747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ōkyō-to, Shinjuku-ku, Hyakuninchō, 1 Chome-9-3	+81-3-3360-7791
상해지구촌교회	上海市 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86-186-2172-9613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zealand	+64-27-414-2777
호치민 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Q. 7, HCMC, Vietnam	+84-8-2211-9951~2
오클랜드지구촌교회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zealand	+64-9-216-1177
동 역 교 회		
광교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	031-212-2291
기흥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81	031-283-7991
동백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3 삼성타워 2층	031-693-8291
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북길 73	031-8003-8253
민들레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664, 2층 1호 (서천동335-2)	070-7757-1201
세움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97-20	031-205-1191
송파 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40 3층	02-431-6458
온사랑 지구촌교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80	070-4119-5941
위례 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2길 30	070-4634-3927
죽전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죽전로 49 시티빌딩 7층, 8층	031-896-7070
만방샘물장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4 대흥빌딩 3층, 4층	031-896-0300
신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278 리더스뷰 프라자3층	031-376-3055

협 력 교 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1-408-719-0000
뉴저지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다바오 디아스포라 교회	Door 1 sigma st. Donavicenta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63-915-582-6307
동안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202동 211-4호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79	02-2647-0191
벤쿠버 지구촌교회	8383-140 St. Surrey. B.C. Canada	+1-604-588-3277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1-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9800 Medlock Bridge Rd #7 Johns Creek, GA 30097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1-404-579-4570
얼바인 지구촌교회	15 Orangetree Irvine, CA 92618	+1-714-673-1978
영진침례교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58번길 5	051-415-0831
워싱턴 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1-301-460-1656
천안 지구촌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지, 201호 (두정동, 퓨전리더스빌딩)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033-254-4059
The지구촌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47 빛가람메디컬빌딩 602, 603호	070-4740-5555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영주침례교회	경상북도 영주시 명륜길 38 영주침례교회	054-634-2004
예일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8	051-518-4189






헌아식

5월 6일 해피패밀리 주일 헌아식에 참석한 아기들이
하나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도해주세요. 지구촌

지구촌비전 통권217호 2018년5월6일발행 발행처·지구촌교회역사자료문서선교팀 031-710-9300 www.jiguchon.or.kr 비매품

V13

GLOBAL CELL CONFERENCE

2018지구촌교회 글로벌셀컨퍼런스

5/24목-25금

지구촌교회 분당채플





'셀'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실제 생동하는 '셀 교회'를 경험해 보세요

강의		
1강	우리는 왜 목장교회를 선택했는가?	CHANGE
2강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선교사	VISION
3강	두 날개로 비상하는 목장교회	CELL
4강	목장교회 성장비전과 팀사역	TEAM
5강	목장교회와 성령의 기름부으심 (치유의 빔)	ANOINTING
6강	목장성숙과 목자리더십	LEADERSHIP

- 선택특강
- 목장교회 현장 탐방(목장교회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 목장교회 Q&A(목장교회에 대해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록 (차수 별 할인)	개인	단체10인~	단체 20인~
1차 3/1(목) - 4/24(화)	6만원	5만원	4만원
2차 4/25(수) - 5/8(화)	7만원	6만원	5만원
3차 5/9(수) - 5/20(일)	8만원	7만원	6만원
기타 할인	선교사 2만원 / 신학생 2만원		

지구촌교회 교인 등록 안내

대상: 지구촌교회 등록교인

등록비: 1만원(교재비 포함,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록마감: 5/13(주일) 등록장소: 양 채플 등록센터

Cell Conference Official Web Site

CC.JIGUCHON.OR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강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CC.JIGUCHON.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T. 031-710-5999, 9430 cell@jiguchon.org